

책 “껌터-메콩델타의 보물” 소개

▶ 껌터의 모든 궁금증, 책으로 말하다

껌터는 맑은 물, 흰쌀과 미인의 고장으로 향기 나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 5대 직할시 중 하나로 메콩델타의 중심이며 관문역할을 하여 모든 길은 껌터로 통한다. 산이 없으며, 강과 운하가 싹뿍처럼 퍼져 있는 물의 도시다.

이곳 여자들이 한국남자와 결혼을 가장 많이 하였다. 그 때문인지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 등 실패한 사람을 위한 “한-베 돌봄 센터”가 이곳에 있다.

2019년 인천-껌터공항 직항노선이 개통되어 이전보다 한국과 많이 가까워졌다. 동남아에서 가장 긴 2,750m의 현수교인 껌터대교가 있다. 껌터대학교와 꼴롱 벼 연구소가 있어 교육과 연구도시이기도 하다. - 책 본문 중에서.

▶ 껌터에 대한 생생하고 유익한 정보원천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책 “껌터-메콩델타의 보물”은 한국의 신(新)남방정책 추진과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맞물려 껌터에 관심 있는 정부·민간·기업·개인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원천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2017년부터 2년간 저자가 현지에서 살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경험과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현지의 검증은 거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사회·문화·교통·관광·음식·기후 등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학술적 가치도 있다.

▶ 차례

여는 글 8/ Prologue 10

1 미인과 흰 쌀의 고장, 껌터 13

껌터는 어떤 곳? 14/ 이름 유래와 역사 20/ 로고 이야기 25/ 아름다울 수만 있다면 더위썹이야! 30/ 껌터 여인들은 어떻게 하얀 피부를 유지할까? 33

2 메콩델타의 중심이자 관문 38

통계로 본 껌터; 조직·인구·GDP·소득 39/ 한국과 가까워진 껌터 45/ 빠르게 변하는 껌터 50/ 2018 새해이브의 껌터시 거리조명 환상적 55/ 낭만의 보행자 다리 59

3 한국과 색다른 주택과 집안 풍경 64

집이 어떻게? 65/ 집에 반드시 있는 것 71/ 오토바이를 거실에 둔다 76/ 서울에선 금지된 일, 껌터에선 일상의 일 81/ 아파트 문은 2중문, 자물쇠는 안에서 잠금 85/ 집 앞 긴 의자와 탁자, 왜? 88

4 거지가 안 보이는 도시, 의료수준은 낮아 93

통계로 본 권터; 기후·주택·결혼·전기·통신·수도·보건 94/ 거지가 안 보인다 98/ 수돗물을 마셔도 안전할까? 102/ 와이파이(Wi-Fi) 이용은 편리한 편 108

5 날씨는 덥고 습하며, 우기엔 매일 비와 113

98일 만에 비 114/ 아주 특별한 하루 날씨 118/ 만조 땀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다 123/ 2018 하순, 권터시는 지금 봄~! 125/ 환경에 따라 일출 느낌 달라 130/ 2018서울 여름은 권터 보다 더 더웠다 136

6 오토바이와 배가 없으면 출퇴근이 어려운 대중교통 142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과 간이육교 설치로 교통난 해소해야 143/ 나루터가 집 앞·뒤에 있다 149/ 작은 다리와 그 위의 문 154/ 걷는 사람이 드물다 161/ 비 오는 날에도 우산 받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 166/ 짜증날 만큼 택시카드 영수증 발급시간이 길다 171

7 금융거래와 시장거래 178

지폐는 12종, 금액 합은 888,800동 179/ 금융거래를 위한 팁 184/ 시장거래엔 에누리나 텀은 없다 190

8 낫설고 특이한 풍습과 문화 194

장의행렬에서 북을 친다. 왜? 195/ 연말에 신년회라니! 200/ 슬리퍼의 위력 204/ 해먹 세상, 권터 211/ 길 위 잔치 215/ 제철 만난 노란 꽃과 빨간 꽃 223/ 땅 위엔 사람, 하늘엔 연(鵞) 226/ 인상적인 결혼기념 사진 232

9 메콩투어는 이제 권터로부터 238

움직이는 까이랑 물위시장, 살아 있는 그림 같아 239/ 전기자동차 타고 권터 시내 관광하기 244/ 바람 타듯 구름 타듯 달빛 따라 한 여정 249/ 베트남아! 잘 있었니? 254/ 물고기가 사람 행동에 반응해 257

10 내 권터 일상생활 엿보기 262

베트남으로 출근하다 263/ 권터의 일상생활 264/ 근무한 한-베 인큐베이터 파크와 나의 주요 활동내용 266/ 5가지 소지품(所持品) 270/ 나는 매일 수채화를 즐긴다 274

닫는 글 281/Epilogue 282

▶저자: 유 기 열

농학박사/ 제12회 농림기술고시/ 순창북중고등학교 교사/ 농림수산부 공무원(33년10월)/ 전북대학교 등 4개 대학교 강의(20년)/ KOICA자문관/르완다대학교 농대교수(2년9월)/ 베트남 한베인큐베이터 파크 NIPA자문관(2년)/ GLG 전문위원 및 프리랜서~
저서: 대학생(수필)/ 바다에는 후회 없는 길이 있다(시집)/ 식물검역학(대학교재)/ 르완다-아프리카의 심장/ 눈에 밝혀 그곳에 다시 가고 싶다/ See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 Korea